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코로나19에 따른 호텔업계의 현황 및 대응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 점검

국제금융시장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코로나19에 따른 호텔업계의 현황 및 대응 1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 점검 4

국제금융시장 9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13

코로나19에 따른 호텔업계의 현황 및 대응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혜리(huyry@kdb.co.kr)

- ◆ 코로나19에 따른 국제 관광객 급감으로 호텔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나, 국내 여행 증가와 호텔업계의 내수 고객 유치 노력 강화 등으로 3분기 들어 영업실적 일부 회복
- ◆ 호텔업계는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비대면 기술이 호텔업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

□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간 이동과 여행이 제한되면서 호텔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음

- '20.3분기까지 방한 외래 관광객은 233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2.0% 감소
 - * 방한 외래 관광객 : ('19.1~3분기) 1,293만명 → ('20.1~3분기) 233만명(△82.0%)
- 또한, '20.상반기 국내 주요 관광지점에 대한 방문객은 1,188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9.7% 감소
 - * 국내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 ('19상반기) 2,364만명 → ('20상반기) 1,188만명(△49.7%)
 - * 제주 입도객(제주관광협회) : ('20.3월) 48만명(전년동월대비 △58.7%) → ('20.7월) 99만명(△24.5%)

방한 외래 관광객 현황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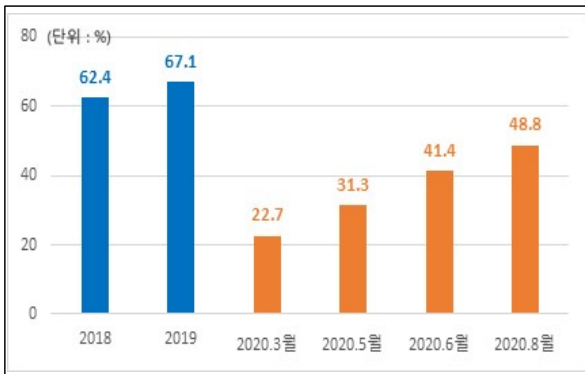


주 :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통계 내 24개 관광지점 통계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7월은 잠정치)

- 방한 외래 관광객 급감 등에 따라서 '20.2분기까지 주요 호텔들의 영업실적은 크게 악화되었으나, 3분기 들어 영업실적이 일부 회복되는 모습
 -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9월 호텔업계 피해액을 약 1조 8,406억원으로 추산
 - * 호텔롯데(연결) : (2Q) 매출액 7,090억원, 영업손실 △2,629억원 → (3Q) 매출액 10,179억원, 영업손실 △1,212억원
 - * 호텔신라(연결) : (2Q) 매출액 5,229억원, 영업손실 △634억원 → (3Q) 매출액 8,795억원, 영업손실 △198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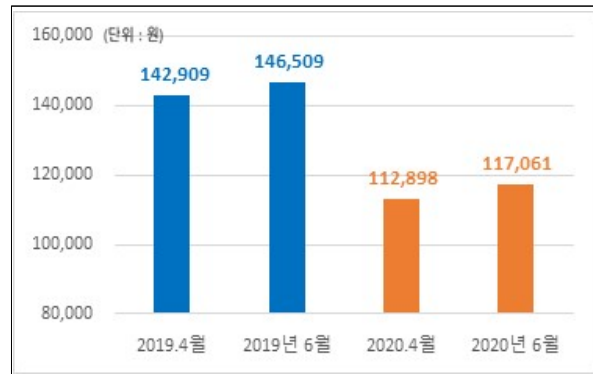
- 국내 호텔 객실이용률(OCC)은 '19년 67.1%에서 '20.3~5월 20~30%대로 하락
* 호텔 성수기인 '20.6~8월 40%대로 일부 회복
- 객실평균요금(ADR)은 '20.6월 117,061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1% 감소

호텔 객실이용률(OCC) 추이



주 : 객실이용률(Occupancy)=(판매객실수/판매가능 객실수)*100
자료 : 한국호텔업협회

호텔 객실평균요금(ADR) 추이



주 : 객실평균요금(Average Daily Rate)=객실매출액/판매객실수
자료 : STR(Smith Travel Research, 시장조사업체)

□ 호텔업계는 내수 고객 유치로 마케팅 전략을 변경하고,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 적극 도입

- 마케팅과 상품 개발 타겟을 내국인과 레저 고객에 집중
 - 내수 고객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숙박상품을 판매하고, 프라이빗한 객실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보드게임·영화·가상현실(VR)·인공지능 등) 보강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GS홈쇼핑에서 숙박상품 판매, 롯데호텔 잼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소통
 - 비즈니스 출장 고객 위주에서 레저 고객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 확대
* 레스케이프호텔 캠핑 패키지, 서울신라호텔 플로팅 요가, 파라다이스시티 피크닉 패키지 출시
- 호텔 서비스에 비대면 기술을 도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 인공지능(AI) 기반의 모바일 컨시어지(Concierge)와 컨시어지 로봇, 무인 키오스크를 도입하여 대면 접촉 최소화
* 코드야트 메리어트 보타닉파크 : 컨시어지 로봇, 객실에서 주문하는 모바일 편의점, 모바일 체크인 아웃

모바일 컨시어지	컨시어지 로봇	무인 키오스크
챗봇(채팅+로봇)으로 편의 제공	어메니티를 고객에게 배달	무인기기로 셀프 체크인·아웃


자료 : 언론 자료 등 참고하여 재정리

- 고객들의 비대면 요구가 증가하면서 호텔 식음료를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
 - 호텔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고급 음식을 집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테이크아웃과 드라이브 스루 및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서비스 도입
 - 호텔 시그니처 메뉴를 가정간편식으로 생산하여 비대면 온라인 판매 확대
 - 라운지·레스토랑에서만 주문 가능한 음식과 호텔 조식을 룸서비스로 제공

□ 향후에도 위생과 비대면 서비스는 호텔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호텔 전반에 비대면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전망

- 고객들의 청결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위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및 정확한 정보공개가 고객들의 중요한 호텔 선택 기준이 될 가능성
 - 따라서 대면 서비스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비대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 호텔 전반에 비대면 기술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
 - * 여행에서 숙소의 위생관리 방침과 현황 고려하여 구매 결정하겠다고 52.3% 응답('20, 익스피디아)
 - * 중국의 Flyzoo(플라이주) 호텔은 미래형 스마트 호텔로, 안면인식·자율주행로봇·시스피커 등 모든 시설과 서비스 무인으로 제공

글로벌 체인 호텔의 대응 사례

힐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힐튼 클린 스테이(Clean Stay) 프로그램'으로 일관된 방역 프로토콜 제공 - 위생 기준을 강화한 클린 스테이 매뉴얼을 개발·운영 - 스위치·손잡이·리모컨 등 고객이 접하는 부분 집중소독 - 체크인·아웃 전 과정을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도록 구현 - 매뉴얼에 따라 청소를 완료한 객실에 '클린 스테이' 스티커 부착 	
하얏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된 위생 리더(팀)가 상주하며 국제 청결도 및 교육 인증 절차 시행 - 하얏트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서비스 이용 가능 	
포시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과 협력하여 '리드 위드 케어(Lead With Care) 프로그램' 실시 - 포시즌스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채팅, 체크인과 룸서비스 가능 	
메리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리어트 글로벌 청결 위원회'에서 청결 기준 수립과 규범 강화 - 메리어트 모바일 앱으로 체크인과 객실 출입 및 룸서비스 가능 	
인터컨티넨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절차를 담은 '클린 프로미스(Clean Promise) 카드' 추가, 식음료 비대면 서비스 	
상그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그릴라 케어(Shangri-La Care) 프로그램'으로 안전 및 위생 프로토콜 제공 	

자료 : 홈페이지 및 언론 자료 등 참고하여 재정리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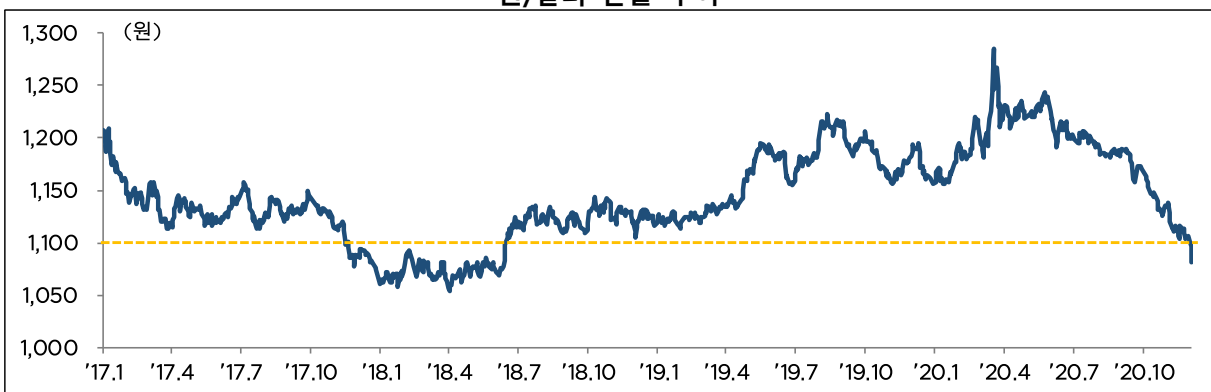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혜진 (ghjkim@kdb.co.kr)

- ◆ 6월 이후 달러화 약세, 위안화 강세 흐름이 조성된 가운데, 9월 이후 수출 회복,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여 12.3일 1,100원선을 하회
- ◆ 당분간 기존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이 지속되어 환율의 추가 하락 가능
 - 다만, 수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제한되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관련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음

□ 최근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심화되어 12.3일 1,100원 밑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으로 3월 중 1,285.7원으로 급등한 후 진정되어 8월까지 1,200원선 부근에서 등락하였으나, 9월 이후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진입
- 10월 중 코로나19 발발 이전 수준인 1,150원대를 기록한 후 하락세가 지속되며 12.3일(1,097.0원) 1,100원선을 하회한 후, 12.4일 1,082.1원까지 하락
 -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18.6월 이후 처음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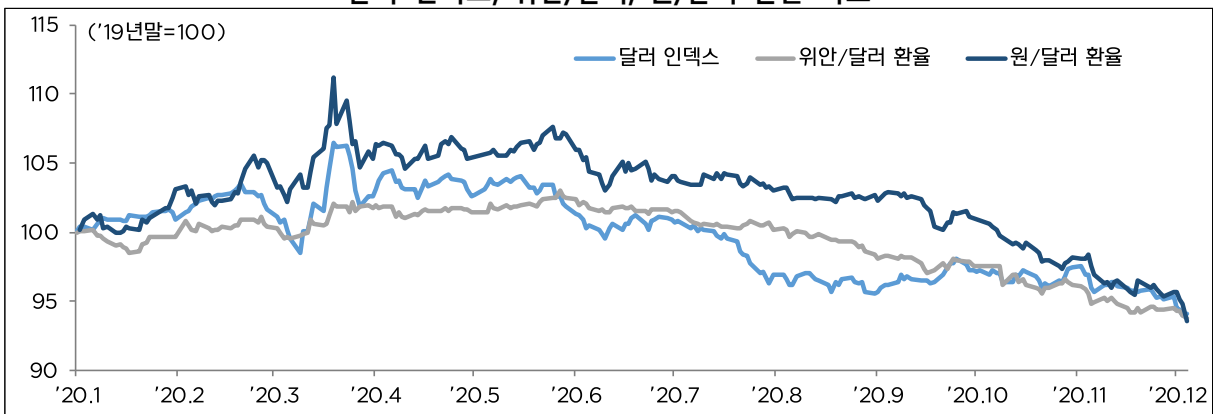


자료 : 연합인포맥스

- 최근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은 ① 달러화 약세, ② 위안화 강세, ③ 수출 회복, ④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⑤ 백신 개발 관련 긍정적 소식에 주로 기인

- 대외적으로는 6월부터 달러화 약세 및 위안화 강세 흐름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
 - 달러 인덱스*는 5월말부터 유로화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반전한 가운데 11월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정 이후 추가 하락
 - *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대비 달러화 가치
 - 위안화는 중국경제가 코로나19 영향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고, 대중국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6월 이후 강세를 시현
 - 5.27일 7.17위안까지 상승하였던 위안/달러 환율은 11월 중 미-중 무역분쟁 이전 수준인 6.5위안대까지 하락
 - 12.4일 현재 달러 인덱스, 위안/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의 연초 대비 하락률은 각각 $\Delta 5.9\%$, $\Delta 6.2\%$, $\Delta 6.4\%$ 로서, 원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상승폭은 메이저 6개 통화 및 위안화의 경우보다 약간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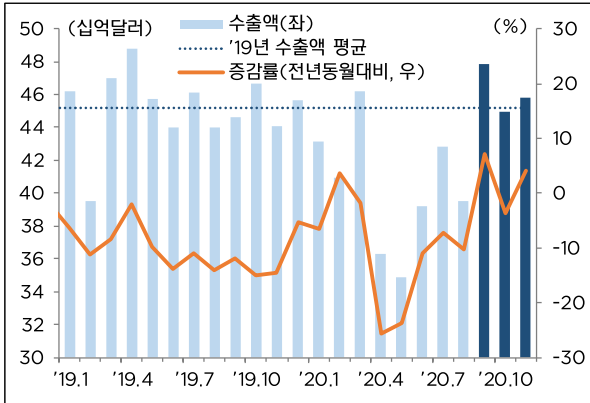
달러 인덱스, 위안/달러, 원/달러 환율 비교



자료 : 연합인포맥스

- 대내적으로는 9월 이후 수출 회복, 외국인 주식투자 증가 등으로 달러화 공급이 증가하여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가속화
 - 4~8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였던 월별 수출액은 9월부터 '19년 평균 수준을 회복
 -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9월 85.2억달러, 10월 58.3억달러, 11월 59.3억달러 등 높은 수준 유지
 - * 1~8월 중 무역수지는 총 186.8억달러, 월평균 23.4억달러 수준이며, 4월($\Delta 16.2$ 억달러) 외에는 모두 흑자
 - 11월부터 외국인 주식투자가 순매수로 전환되어 환율 추가 하락요인으로 작용
 - 3월 이후 두드러졌던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도는 9~10월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11월에는 순매수로 전환
 - 11월 코스피는 최고점 경신을 이어가며 12.4일에는 2,731.45pt까지 상승

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주식 순매수(연초 이후 누적) 및 환율 추이



자료 :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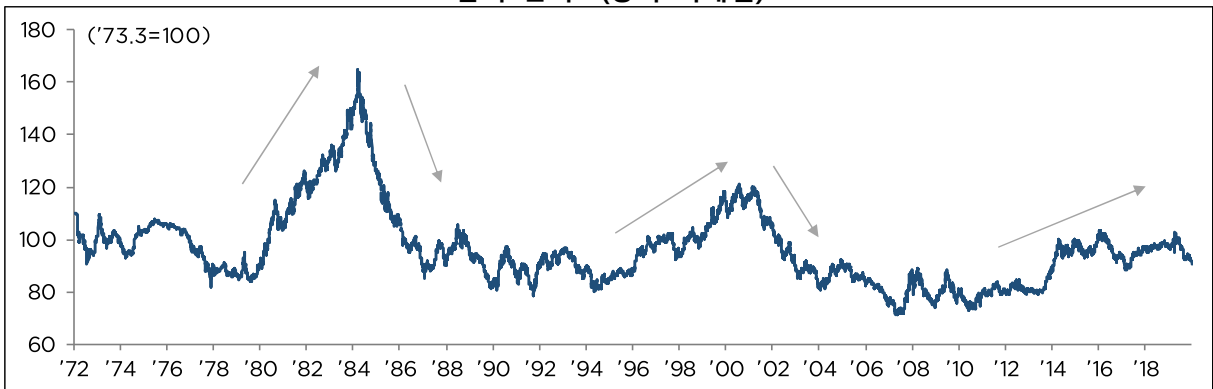
- 11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연이어 전해진 가운데 12.2일 (현지시각) 영국이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

-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제약사는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가 90%를 상회한다고 발표
- 미국, 유럽 등에서도 본격적인 접종 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코로나19 억제 및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며 환율 하락에 기여

□ 달러화 약세, 위안화 강세, 한국의 수출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등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켰던 요인들이 당분간 지속되어 환율의 추가하락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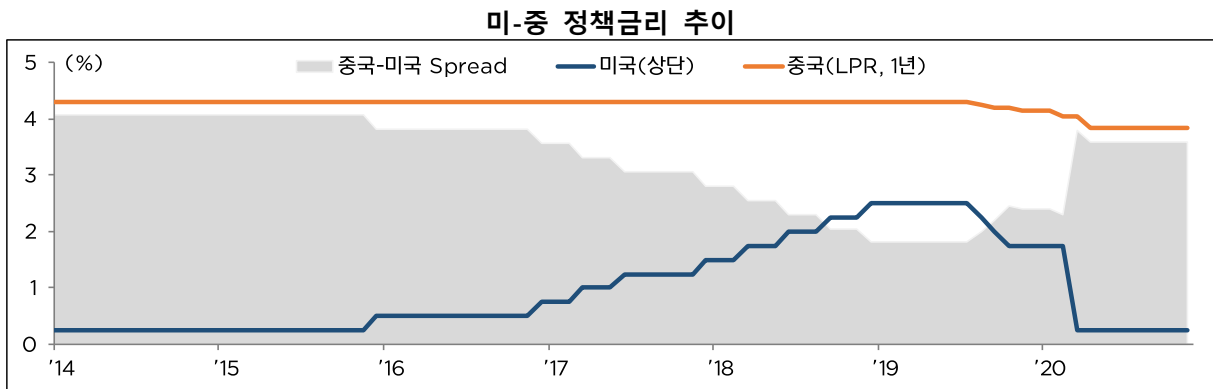
- 달러화는 미국 정부의 확장재정 및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약세폭이 확대될 전망
 - 달러 인덱스를 장기 시계열로 살펴보면, 대략 15년을 주기로 강세와 약세를 반복하고 있어 달러화가 하락 사이클에 접어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
 - 주요 투자은행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 향후 1년간 달러화 가치에 대하여 골드만삭스가 약 6%, ING가 약 10% 추가 하락을 예상하였으며, 씨티는 '21년 중 20%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

달러 인덱스(장기 시계열)



자료 : Bloomberg

- 위안화의 경우, 중국 정부의 쌍순환 정책* 추진에 따른 강세 예상
 - * 기술자립·내수위주 성장과 대외개방을 골자로 하는 중국의 14차 5개년('21~'25년) 발전계획의 핵심
 -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개방 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가운데 미-중 금리차가 확대되어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유인이 강화
 - 이와 더불어 위안화 강세가 내수촉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개연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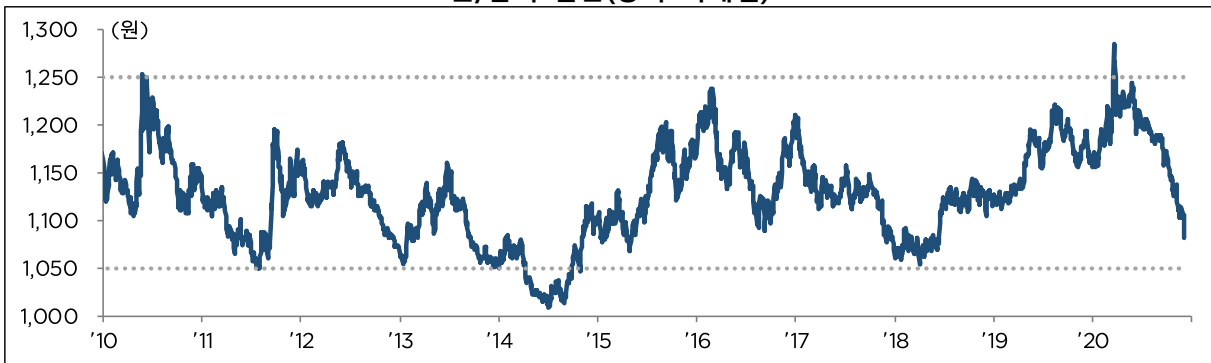
- 대내적으로는 수출 증가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기조가 유지될 전망
 - '21년 세계경제 회복, 교역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및 무역수지 개선 예상
 - 이에 따라, 수출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증권투자가 확대되며 달러화 공급 증가에 따른 환율 하락압력 예상
 - 다만, 외국인 주식투자는 주요국의 생산활동 정상화에 따른 투자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익실현 등으로 매도 발생 및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도 가능
- 또한, 주요국의 본격적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는 것이 확인 되면 위험선호가 더욱 자극되어 원/달러 환율의 추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다만, 수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백신 안전성 관련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성 가능

-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가능성, 가파른 하락에 대한 당국의 경계 등은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제한하는 요인
 - 11.25일 발표된 한국무역협회*의 “최근 수출기업의 환율 인식과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5.5%가 환율 하락시 수출액 감소를 예상
 - 또한, 현재 환율이 수출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을 이미 하회
 - * 수출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 : 대기업 1,126원, 중견기업 1,135원, 중소기업 1,133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의 환율 하락에 대해 수차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과도한 변동성, 일방향 쏠림이 지속될 시 당국의 경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10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 주로 1,050~1,250원 범위에서 등락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하락에 대한 부담도 존재

원/달러 환율(장기 시계열)



자료 : 연합인포맥스

-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곧 시작될 것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경제·금융 전반뿐 아니라 원/달러 환율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의 완화가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
 - 코로나19 백신이 '패스트 트랙' 하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
 -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백신 접종의사가 있는 미국 국민 비중이 60%를 기록하여 지난번 조사(9월, 51%) 대비 증가하였으나,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 역시 62%를 차지
- * [Pew Research Center\(20.12.3\), "Intent to Get a Covid-19 Vaccine Rises to 60% as Confidence in Research Development Process Increases"](#)
- 예상치 못한 백신의 부작용 발생은 경기회복의 속도 및 기대를 약화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 가능

국제금융시장 11월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혜진 (ghjkim@kdb.co.kr)
 정대형 (wellbaby@kdb.co.kr)

- ◆ **(환율)** 달러화는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 진행 과정에서 등락 이후 약세를 보였으며, 원화는 달러화 약세,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강세가 심화
- ◆ **(금리, 주가)** 미 국채 등 장기금리는 대체로 전월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선진국 증시는 예방률 높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의 호재로 전월 대비 일제히 상승

□ **(환율)** 달러화 가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을 보인 후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실해짐에 따라 약세가 본격화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여 1,100원선까지 진입

- 달러 인덱스*는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개표 상황에 따라 등락하며 변동성을 보이다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진 후 본격적으로 하락
 - *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대비 달러화 가치
 - 달러 인덱스는 개표 초기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우세를 보여 상승출발 하였으나, 우편투표 개표 후 바이든 후보가 역전하자 하락세로 전환
 - 이후 백신 관련 소식, 미국의 정권이양 불확실성 완화, 엘런 전 연준의장의 재무장관 내정 등으로 추가 하락하여 '18.4월 이후 처음으로 월중 91pt대 기록
- 백신 관련 소식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 엔화에 대한 약세압력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
- 유로화는 전월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바이든 후보 당선에 따른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강세 시현

주요 선진국 통화 환율 추이

	'18년말	'19년말	'20.10월말	'20.11월말	전월대비
달러 인덱스	96.140	96.479	94.022	92.007	△2.14%
엔/달러	109.61	108.66	104.64	104.41	△0.22%
달러/유로	1.1456	1.1219	1.1647	1.1929	+2.42%

자료 : 연합인포맥스

- 원/달러 환율은 가파른 하락에 대한 당국의 경계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 순매입 등의 영향으로 1,100원선까지 하락
 - 월초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환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우편투표

- 개표 이후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하락 반전, 1,100원대 진입
- 환율의 가파른 하락에 대하여 당국에서 수차례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외국인 주식 순매수**,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 지속

* 기재부는 16일 "최근의 환율 변동이 과도한 수준"이며 "인위적인 변동 확대 유도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은 총재 역시 26일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

** 11월 외국인은 4개월만에 주식 순매수(4.96조원)로 전환하였으며 코스피는 사상최고치를 연이어 갱신

원화 환율 추이

	'18년말	'19년말	'20.10월말	'20.11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1,115.7	1,156.4	1,135.1	1,106.5	△2.52%
원/엔	1,017.9	1,064.2	1,084.3	1,059.6	△2.28%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대체로 전월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미국 화이자 등의 고효능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따라 월중 급등*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추세적인 상승을 제한

* 10년 만기 美 국채 금리 : 0.7629(5일) → 0.9753(11일)

- 유효율이 높은 백신 출시 기대와 美 대선 결과 관련 불확실성 감소 등 금리 상승요인이 코로나19 경기회복에 대한 신중한 전망 등에 의해 제약

□ (주가) 선진국 증시는 호재 등장으로 전월 대비 현저한 상승세 시현

- 선진국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기대와 미국의 정권 이양 작업 개시에 따라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선을 돌파*하는 등 일제히 호조세

* 미국 다우지수는 24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30,046.24로 마감

- 특히, 유효율 9할 이상의 백신 개발 소식(9일)은 단기적으로 컨택트 가치주 가격의 급등*과 함께 언택트 기술주 가격의 급락**을 동시에 초래

* 다우지수 : 28,323.40(6일) → 29,420.92(10일) (+3.87%)

** 나스닥100 : 12,091.35(6일) → 11,624.29(10일) (△3.86%)

주요국 국채 금리 및 주가 추이

		'18년말	'19년말	'20.10월말	'20.11월말	전월대비
금리 (%)	미국채 10y	2.6842	1.9175	0.8737	0.8389	△3.48bp
	독일채 10y	0.2420	-0.1850	-0.6270	-0.5710	+5.60bp
	일본채 10y	0.0030	-0.0110	0.0420	0.0320	△1.00bp
주가 (pt)	다우존스	23,327.46	28,538.44	26,501.60	29,638.64	+11.84%
	유로 Stoxx 50	3,001.42	3,745.15	2,958.21	3,492.54	+18.06%
	Nikkei	20,014.77	23,656.62	22,977.13	26,433.62	+15.04%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시장 12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혜진 (ghjkim@kdb.co.kr)
 정대형 (wellbaby@kdb.co.kr)

- ◆ **(환율)** 달러화의 추가 약세 및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 전망
- ◆ **(금리, 추가)** 전반적인 시황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전망과 美 바이든 행정부 정권 인수의 진척 여하에 따라 상승세가 속도 조절을 받는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

□ (환율) 달러화 약세 심화 가능성이 있으며, 원/달러 환율도 추가 하락 가능

○ 달러화 : 추가 약세 가능

-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연준이 12월 FOMC에서 경기부양 의지를 재차 표명할 것으로 예상
 - 12.2일 발표된 베이지북*에 따르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중 4곳이 관할 지역의 경제성장이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고 평가
 - * 연준이 1년에 8회 발표하는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경제현황을 평가하는 경기동향 보고서로 이번에 발표되는 보고서는 12월 FOMC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됨
- 또한, 옐런 전 연준의장이 바이든 정부의 신임 재무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에 대한 기대가 부각될 전망
 - 시장에서는 옐런 전 연준의장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연준은 정부의 확장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에 관한 새로운 소식에 따라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음

○ 엔화 : 보합세

- 약세요인과 강세요인이 병존하고 있어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할 전망
 - 백신 개발 관련 긍정적인 소식은 안전자산 선호 약화를 통하여 엔화에 대한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나 달러화의 약세는 엔화 강세요인으로 작용

○ 유로화 : 추가 강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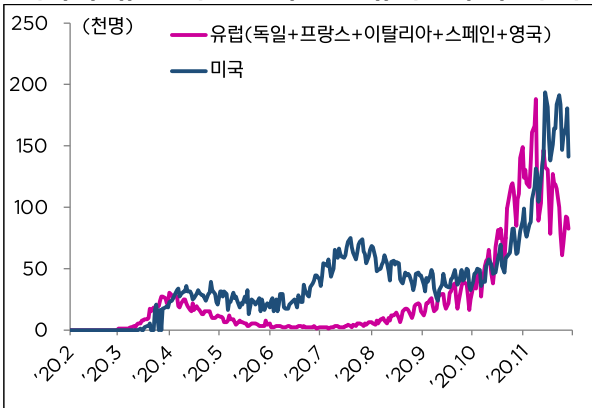
- ECB가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로 도입하는 경기부양 조치들이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지 못할 경우 유로화 추가 강세 가능

- 10월 회의에서 ECB가 다음 회의까지 추가 완화책을 강구할 것임을 예고하였기 때문에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가 일정부분 환율에 선반영되었다고 판단
- 한편, 브렉시트에 임박하여 진행중인 영국과 EU의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협상에서 여전히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점은 유로화에 대한 불안요인

○ 원/달러 환율 : 추가 하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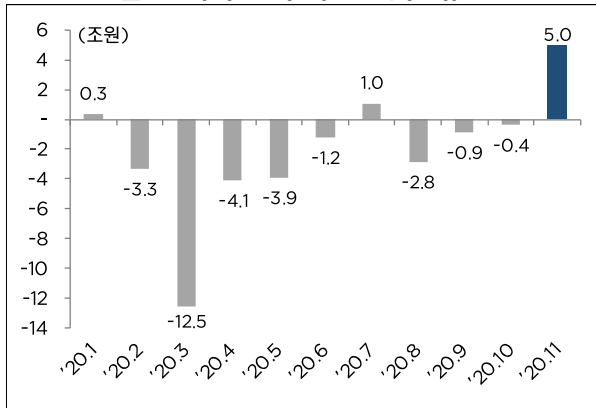
- 달러화 약세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원/달러 환율도 추가 하락 가능
- 다만, 최근 가파른 하락 속도에 대한 부담, 환율 하락에 대한 당국의 경계 등은 환율 하단을 제한하는 요인

미국과 유럽 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 추이



자료 : WHO

월별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주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전망과 추가부양책 논의 향배 등이 금리·주가에 영향 전망

○ 금리 : 낙관적 심리가 신중하게 발현될 가능성

- 백신 상용화 기대로 전반적인 상승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21.1.5일 예정인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전까지는 추가부양책 전망 관련 변동성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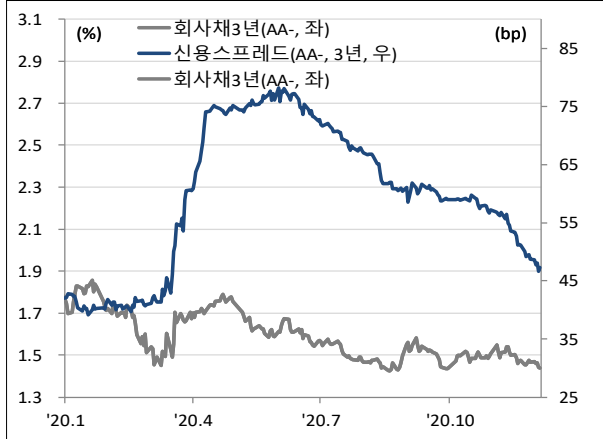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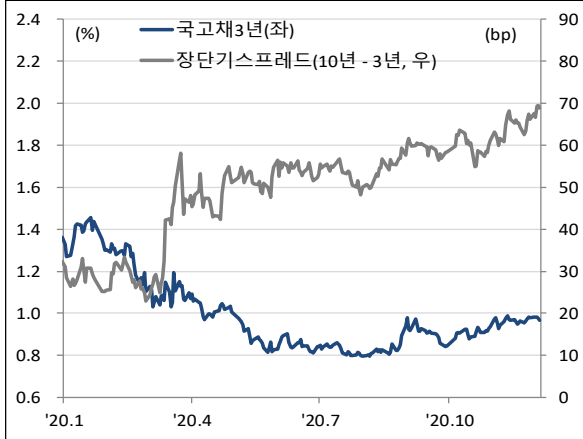
○ 주가 : 위험자산 선호의 점진적 확산 전망

-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확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백신 상용화 일정과 美 정권 이양 진척이 가시화됨에 따라 조기 경제 정상화 기대로 인해 주식 선호 경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

(담당자 : 환율 - 김혜진, 금리·주가 - 정대형)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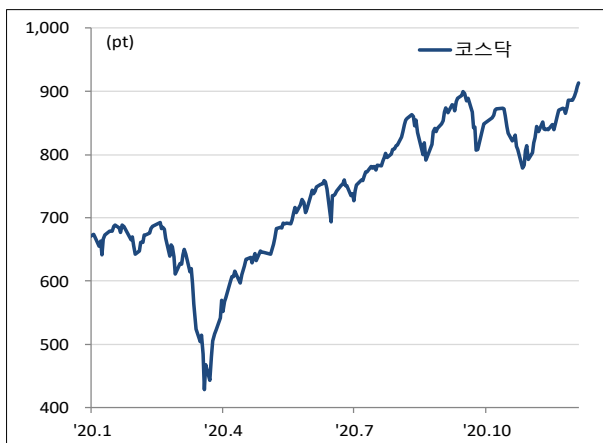
금 리 국고채3년 0.966% (1.3bp ↓), 신용스프레드 47.3bp (1.4bp ↓)



환 율 원/달러 1,082.1원 (21.1원 ↓), 엔/달러 104.16엔 (0.44엔 ↓)



주 가 코스피 2,31.45pt (3.72% ↑), 코스닥지수 913.76pt (3.18%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06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